

독 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중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대행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 640호 현대불교
2007년 8월 8일(음력 6월 26일) 수요일 / 불기 2551년

법공양 페이지

21

지금 시대는 부처님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이 좀 굳어 있으니 우스운 얘기 좀 하고 시작하죠. 그전에 말합니다. 제가 어느 산길로 들어서서 내려다보니까 조그마한 마을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이런 생각이 났죠.

예전에 말합니다. 한 정승이 지나가는데 거지가 아들을 데리고 있다 하는 소리가, "야! 정승이 얼마나 바쁘겠느냐? 나는 그렇게 바쁘지 않고, 잠도 늦도록 잘 수 있고, 아무 데 가서도 앓을 수 있고, 아무 데 가서도 편안할 수 있으니, 그리고 또 배가고파도 가서 달라면 좋겠고, 그러나 얼마나 편안하냐?" 하니까 아들이 있다 하는 소리가 "그럼요. 그것이 아버지 덕분이죠" 하거든요.

또 거지가 아들을 데리고 휘적휘적 가다보니까 물난리가 나서 야단들이거든요. 아마 올갈이 그렇게 물난리가 많이 났던 모양이죠. "야! 너는 참 행복하구나, 아버지를 잘 뉘셔." 그러니까 아들이 있다 하는 소리가 "정말, 아버지 덕분입니다. 우리는 집이 없어서 물난리 날 일이 없으니 마음 편안하고, 또 땅갈을 내리니 걱정인가? 아무 걱정도 없으니 이 팔자가 상팔자지 뭐니까?" 아,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거지 부인더러 하는 소리가 말합니다. "12월달만 되면 모두 빗물을 주고받고 하는데 우리는 빗 잘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으니 얼마나 편안하냐?" 하니까, 부인이 있다 하는 소리가 "참, 당신 덕분에, 당신한테 시집을 잘 왔죠. 당신 덕분에 얼마나 편안합니까?" 하거든요.

그런 생각이 그 불 나는 바람에 문득 났는데 내가 어린 탓인지 몰라도 그만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왜 웃었겠습니까? '자도 누가 땅갈 내라는 사람이 있다. 어쩌면 그렇게 나와 똑같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지요. 팔자가 좋아서, 정말이지 기뻐서 웃었습니다.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보다도 그때가 너무 즐거웠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요즘은 여러분이나 또 우리 스님들이 '올라 가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리로 가십시오, 저리로 가십시오.' 그러거든요. 지금으로. 그러나 그때보다야 자유스럽지 못하죠. 허허허. 그뻘 지금처럼 기운이 있어서 막 웃지도 못했지마는 킁킁킁 하고 얼마나 웃었는지, 즐거운 웃음이었습니까. 아, 자도 땅세 내린 말도 없고, 하늘을 지붕 삼았으니 누가 세급 내리는 사람도 없고 집을 치우느라고 걱정할 것도 없고, 태을 까봐 걱정할 것도 없고, 집어갈까봐 걱정할 것도 없고, 아무 걱정도 없으니 말합니다.

단 하나, 그전에 생각을 한 거는 그때엔 나이가 어리니깐 말합니다.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살아 있지만 그때는 혼자 다니기가 안됐었는지 진흙을 얼굴에다 덕지덕지 칠해서 팔라붙은 채 다녔던 거밖에 없습니다. 이 집을 누가 집어갈까봐 말입니다. 허허허.

참, 그때는 재미있는 얘기가 많았습니다마는 재미있는 얘기라고 하기 이전에 지금도 때때로 그 생각을 하면 참 빙그레 하고 웃습니다. 올해도

가지 법을 들일 수도 있고, 둘째 내가 만 가지의 모습을 할 수도 있고, 만 가지의 모습을 거둘 수도 있고, 또 셋째 내가 만 가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만 가지 사람을 내가 혼자... 이러한 뜻을 우리가 알지 않으면 안 되니 만큼 지금 시대가 빠르게 치닫고 있습니다.

알고 본다면 우리나라는 한 시무의 콩나물예 대가리 하나 낀 것밖에는 안 되는 나라, 지구 안에서 서도 그런데, 대전세계를 한데 합친다면 그게 만

지는 못하나, 잘 먹진 못하나 그래도 마음을 거스르지는 말아야 하고,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기 이전에 인의롭게 잘 대해주고. 그러다보면 딱딱하니깐 나갔다가도 집으로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야! 이 새끼야! 너, 공부하랬더니 만날 놀러만 다녀? 대학은 언제 들어가고, 공부 언제 하고..." '야, 이 새끼야!' 이러면 버릇이 그냥 남아서 내내 애들을 보면 '이 새끼, 저 새끼!' 이렇게 되고, '야!' 이렇게 되고 부인더러도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말을 하려다가 뼈두로 가졌 얘기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만 이제 시작을 해야죠.

사대오인이 다 공(空)해서 소천세계 중천세계 대전세계가 있다 한다면, 바로 우리 이 지구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는 대로 혹성들, 은하계, 태양계도 거기대로 문제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태양계도 수억 개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혹성들이 이 오온에 가득 찬 데다가 예를 들어서, 잘디잔 건 빼고도 큰 것만도 여섯 개나 되고, 그 다음에 아홉 개, 그 다음에 열두 개, 그 다음에 열여덟 개, 그 다음에 이십칠 개, 이렇게나 큰 어마어마한 문제를 가지고 바로 풍자가 풍자를 넣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그렇단 말이지, 앞으로는 더 있을지도 모릅니다.

벌써 이런 말 하고 지나가면 벌써 백년이 흘렀다는 등, 삼년이 흘렀다는 등, 삼년이 흘렀다는 등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이렇게 말하고 돌아서면 벌써 일년이 지났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똑똑히 따지고 보면 일년 반을 지난다고 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돌아서면 말합니다. 그렇게 시공이 없이 빠른 그 진리 속에서 우리는 지금 허덕거리고, 이렇게 일일이 걸리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가 우리 은하계를 따지고 보면 우리가 지금 은하계의 별성밖에는 되지 않는다. 별 속에 별이 있습니다. 별에서 별을 낳듯이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혹성이, 혹성 안에 별이, 우리는 혹성이면서도 별입니다. 별이면서도 그 속에 지금 운행하고 있는 그 생명체들이 너무도 질서정연하게 동맥 정맥을 오르고 내리는 반면에, 모든 일체 생명들은 자기 부서를 맡아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은하계도 조금도 틀어 없이 운영을 잘하고 있고, 혹성 이 지구 자체도 그렇고, 모든 것이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가 어디로 돌아가는지 우리는 지금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디 가서 있는지, 지구가 어디로 돌아서 어떻게 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대로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도 그런 얘길 했지마는 좀 더 상세히 말하자면 그

22면으로 계속



그림 · 최주현

물난리가 난 것을 보니까 그때 그 생각이 나서 빙그레 웃었거든요. 한편으로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웠습니다. 오늘 낮에도 여러분이 오시면서 '어, 비가 오네!' 그러기에 내가 '여러분이 편리하지 않을 텐데, 비가 오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비가 안 와서 여러분한테 조금 편리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마음으로부터 만 가지 법을 내놓을 수도 있지만, 만

지 알갱이만이나 할까요. 그렇게 보잘것없는 먼지 알갱이 같은 것을 가지고 할가할부하면서 서로가 옳지 않다고 그 싸움을 하고 화복하지 못하고 이런다면, 우리는 지금 공부한다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 상전은 우리 애들입니다. 심부름꾼은 엄마 아빠가 돼야 되고요. 첫째, 참 잘해 주어야 하고, 오순도순 말도 곱고 또 옹화 있게 해야 하고 잘 먹어야 하고, 잘 일해야 하고, 잘 일하

'야!'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한다면 아니 됩니다.

나는 어려서 이런 거를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일본 사람들의 교양이라든가 그 습의 도리를 볼 때, 아내더러도 존대하는 거, 자식한테도 '해라'를 하지 않는 거, 자식들이 보는 데는 절대 싸우지 않는 것만은 참 보고 배울 만합니다. 또 남이 뉘를 주면 반드시 그 점시에 대신 다른 걸 답아서 주는 거, 이런 거를 볼 때에 아주, '사명 대사가 철저히 버릇을 가르쳐놨구나!'

여래심지요문통가경 如來心地要門楞伽經 강의 안내

원조 각성 강백 컨스님 직강

조계종 교육원 부설 불교서술전문강당을 졸업한 1기-2기 스님들이 공부를 계속 이어가고자 禪敎연구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본 선교연구모임에서는 금번 선종의 중국 조조인 달마대사께서 2주 헤가대사께 心印을 전해줄 적에 함께 전수한 능가경 4권을 총정리한 당나라 화엄종주 현수 법장스님께서 능가현의 깊은 뜻을 밝힌 경을 우리나라 최고의 대강백이신 각성 컨스님을 모시고 공부하고자 합니다. 포교당 및 사찰주지스님은 물론 불교학자, 재가자들은 동참하시어 중생포교와 자기완성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 ◆ 개강일시 : 2007년 9월 15일 토요일 오후 2시
- ◆ 강의시간 : 매일 3째주 토요일 오후 2시 - 5시
- ◆ 강의장소 : 조계종 총무원 국제회의실 강당
- ◆ 수강료 : 6개월 25만원
- ◆ 자격 : (가) 비구, 비구니 - 법납 15년 이상, 불교서술전문강당 졸업자, 재학생 및 승가대학 졸업자에 한함. (나) 재가자 - 불교서술전문강당 졸업자, 재학생 및 불교대학이나 불교대학원을 졸업한자로 재적사찰을 가지고 있는 자.
- ◆ 구비서류 : 출가자 - 수행이력서 1통, 반명함사진 2매 재가자 - 이력서, 졸업증명서, 반명함 사진 2매, 신도증 사본 1매
- ◆ 접수기간 : 2007년 7월 13일 - 9월 7일까지
- ◆ 입금처 : 국민은행 429102-04-031256 예금주 최재동
- ◆ 문의 및 접수처 : 02)735-1053 / 핸드폰 018-242-7070, 011-497-8018
- ◆ 서류접수처 : 서울 중로구 견지동 65-1번지 천마빌딩 905호

불교서술전문강당 동문회 禪敎연구모임 운영위원장 범경 합장

보은사 울산포교원 통명정사 교육원 개원안내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래된지 1600여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부처님의 인연을 더욱 키우고저 생활속에서 함께할 도심속에 포교원을 개원하여 중생의 복밭이 되며 생활속에 지친 불자들의 휴식과 마음의 안정을 약속할 도량이기를 발원하옵고

평소에 불교가 어렵다고 생각하신적은 없으셨습니까? 보은사 울산 포교원 통명정사로 오십시오! 쉽고, 재미있게 자리로운 부처님길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불교의식, 불교기초교리, 생활요가

개원일 2007년 8월 11일(토) 오전 10시

요일	강의내용	시간	대상	비고	강사
월	불교 기본 의식	오후 2시~5시	일반, 스님	도량식, 중생, 예불, 불공3개월	석원범
화	기초예절, 기초교리 및 사찰 건축물의 이해	오후 2시~5시	일반	3개월	석혜명
수	"	오후 2시~5시	일반	3개월	석혜명
목	생활요가	오후 2시~5시	일반	3개월	석동산
금	생활요가	오후 2시~5시	일반	3개월	석동산
토	불교제반의식	오후 2시~5시	일반, 스님	재의식, 임종염불, 방생, 일반법회6개월	석원범

- ◆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 2동 618-14 (울산대학교 정문 맞은편)
- ◆ 전화 : 052)247-8883 / 052)238-8819 / 휴대폰 : 010-4554-1412